

## 한 가지 (1)

8월 넷째 주

- 읽을 말씀 시 27:4, 눅 10:38-42
- 주요 내용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잠시 억누를 수 있을 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 1.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의지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도적인 의지(줄기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의지(가지 의지)입니다.

시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빌 3:13-14,16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소원은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도적인 의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꾀대 역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의지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의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선택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좋은 간증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자극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며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의지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도적인 의지의 변화 없이 일반적인 의지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의 자극을 받아 변화되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즉 변화되려면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릭 워렌이 잘 지적한 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드려서 그분이 마음껏 쓰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주님 무엇을 하리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는 바울이 즉각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인 것을 깨닫고 자기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행 9:15-16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 하시니”

이것이 바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행 22:10)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내 이름을 전하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이것은 절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한편,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의지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 2.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해도 일시적인 변화만을 경험하게 된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일반적인 의지로 변화되고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할 뿐 지속 가능한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통해 받은 자극이 주는 추진력은 처음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강해집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옛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경험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 반복되는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악의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악의 사이클이 형성된 사람은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서 지치고 낙심되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이들도 진심으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악의 사이클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평생 피곤하게 싸우지만 참된 자유와 승리를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3.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정반대의 사이클이 형성된다.

진지한 신자들이 참으로 갈망하는 것은 바로 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 즉 자유입니다.

#### 시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 번역본들에 의하면, “정직한 영”은 견고한 영(심령)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원하는 것은 정한 마음(거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직한 영을 더 원하게 됩니다. 정결을 구해서 정결해졌는데 견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버립니다. 힘겹게 얻은 것인데 쉽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영은 바로 주도적인 의지가 바뀔 때 주어집니다. 주도적인 의지가 바뀔 때 마음이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주도적인 의지가 바뀌면 악의 사이클이 파쇄되고 정확히 정반대의 사이클이 그 사람 안에 생겨납니다. 물론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의의 사이클이 생기더라도 여전히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허용하여 생기는 추진력만큼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의 힘이 우리를 장악하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의의 사이클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의 힘은 약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집니다. 새로운 주도적인 의지가 존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도적인 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주도적인 의지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악의 사이클이, 다른 사람에게는 의의 사이클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하려면 먼저 주도적인 의지를 바꿔야 합니다.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 ● 나눔과 적용

1. 진정한 변화는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일어납니다. 일시적인 자극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변화를 기대했으나 결국엔 좌절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주도적인 의지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었을 때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나누어봅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드려서 그분이 마음껏 쓰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